



제106회 전국체육대회기념 | 건강수명 연장 - 운동을 통한
제63회 한국체육학회 학술대회 | 체육계의 역할을 이야기하다.



한국체육정책학회

구두 발표

- 스포츠도핑 규정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Agentic RAG 연구
곽민정·김민규(인하대학교) 359
- 초등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FGI 분석을 중심으로
문승현·김민규(인하대학교) 360
- 국제 표준 기반 e스포츠 탄소발자국 측정과 정책적 시사점
정명섭(인하대학교) 361
- 올림픽에서 재현되는 세계화와 국가 정체성의 공존: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식의 서사 구조 분석
정한·박재우(한양대학교 ERICA) 362
- 한국 청소년 사이버 도박 실태 및 현행 예방정책에 관한 고찰
주성택(가천대학교 초빙교수)·신다혜(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임지은(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363
- 중국 노인 신체활동 영향 요인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사회생태학적 접근
학사위·박재우(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364

포스터 발표

- 한국형 스포츠행복지표 건강 영역 지표의 공간분석: 건강생활실천율과 우울감 경험률을 중심으로
강권현(인하대학교)·김민규(인하대학교) 365
- 전공 만족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불안감에 미치는 영향: 체육계열 전공 대학생 중심으로
김호준·이유정·손민영·김태현·김영미(삼육대학교)..... 366
- 스포츠지도사 자격 연수과정의 효과성 분석
임지은·김차용(고려대학교) 367

구두 발표

스포츠도핑 규정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Agentic RAG 연구

곽민정·김민규* (인하대학교)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금지목록은 매년 갱신되며, 약물 분류, 경기 중·외 사용 여부, 특정 종목 제한, 치료목적사용 면책(TUE) 등 다층적 요건을 포함하고 있어 선수·지도자·학부모가 직접 확인하고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본 연구는 사용자가 실제 복용한 약물(처방약 혹은 약국 구매 약물)의 이름을 입력하면 해당 약물이 도핑 규정에 저촉되는지 판별해 주는 질의-응답 구조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도핑 규정의 복잡성과 반복되는 개정으로 인해 현장 관계자들이 겪는 정보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해 Agentic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반 도핑 챗봇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구현하는 데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먼저, WADA·KADA 문헌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API를 연동하여 약품 성분·품목 정보를 정규화하였다. 이후 이름 정규화 모듈과 규칙 엔진을 결합하여 사용자가 입력한 약품명을 매핑하고 도핑 여부를 규정에 따라 판정하도록 하였다. RAG는 판정 결과와 함께 근거가 되는 문헌과 규정 조항을 제시하여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연구 결과, 사용자가 입력한 질의에 대해 도핑 규정 저촉 여부를 응답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응답의 정확도와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량적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향후 실험적 평가와 사용자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선수·지도자·학부모 등 현장 관계자들이 손쉽게 도핑 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도구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스포츠 현장에서의 규정 준수와 선수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정량적 성능 평가, 사용자 경험 분석, 유관기관과의 협력 연구를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kmk@inha.ac.kr

구두 발표

초등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FGI 분석을 중심으로

문승현·김민규* (인하대학교)

본 연구는 학교스포츠클럽의 운영 실태를 다층적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실무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최근 학교스포츠클럽은 학생의 신체활동 참여 기회 확대와 더불어 자율성, 사회성, 협력적 태도 함양 등 교육적 효과를 강조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확대와 함께 현장에서는 운영 구조의 불균형, 지도자 전문성 부족, 학습권 보장 문제, 시설·재정적 한계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실증적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경험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균형 있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적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관리자 4명, 교사 4명, 학부모 3명, 학생 3명 등 총 14명으로 4개의 그룹을 구성하였고, 학교스포츠클럽의 기획·운영·참여·지원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집단을 포함시켰다. 면담은 반구조화 질문지를 활용하여 학교스포츠클럽의 운영 경험, 성과, 문제점, 개선 요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개방 코딩을 거쳐 주제별로 범주화하고 의미망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학교스포츠클럽은 학생들에게 신체활동 참여 확대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기주도적 참여, 협동적 관계 형성, 스트레스 해소 등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였다. 둘째, 운영 과정에서는 지도자의 전문성 부족, 안정적 지도자 확보의 어려움, 시설과 장비의 한계, 행정적 지원 미비 등이 구조적 문제로 확인되었다. 셋째, 학부모는 자녀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핵심 가치로 인식하였으며, 과도한 훈련이나 경기력 중심 운영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넷째, 학생들은 다양한 종목 선택과 자율적 참여 기회를 요구하였고, 일부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진로 탐색 및 사회적 관계 형성의 장으로 인식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학교스포츠클럽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 스포츠자원과의 연계 강화, 전문 지도자 양성 및 배치, 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그리고 안정적인 행정·재정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참여자 중심의 운영 모델 확립이 강조된다. 본 연구는 정책적 담론에서 간과되기 쉬운 현장 참여자의 목소리를 다층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학교체육 정책 수립과 운영 실무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kmk@inha.ac.kr

구두 발표

국제 표준 기반 e스포츠 탄소발자국 측정과 정책적 시사점

정명섭*(인하대학교)

e스포츠는 글로벌 스포츠로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2026년 나고야 아시아경기대회 정식 종목 채택과 전국소년체전 정식 종목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위상 변화에 따라 e스포츠 역시 공공체육의 지속가능성 목표와 환경적 책임을 분담해야 하며, 단순한 산업 성장 논리를 넘어 국제 표준에 기반한 제도적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검증된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 방법론을 적용하여 e스포츠 이벤트의 환경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건설·인프라 분야에서 활용되는 EN 15804 표준을 도입하였다. EN 15804는 원래 건설 제품의 환경성 선언(EPD)을 위해 개발되었지만, 준비 - 운영 - 철거로 이어지는 모듈 구조가 스포츠 이벤트와도 자연스럽게 호환된다. 또한 이벤트 지속가능성 경영 표준인 ISO 20121은 운영 원칙과 프로세스를 제시하지만, 정량적 탄소발자국 산정 지침은 부재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ISO 14040/14044의 상위 프레임워크를 준수하면서, EN 15804를 참조하여 스포츠 분야의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는 정량적 평가 체계를 구축하였다.

사례 연구는 2024 인천 e스포츠 챌린지 스쿨리그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관리비 정산서, 폐기물 처리 영수증, 대회 결과보고서 등 1차 자료를 종합하여 전력, 장비, 이동, 네트워크, 폐기물 등 대회의 전 과정 자료를 체계화한 뒤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대회는 4개 메인 종목과 부대 이벤트를 포함하여 참가자 1,588명, 관람객 3,511명이 참여한 대규모 복합 행사였다. 운영 자료에 따르면 경기장 전력 사용량은 조명 515kWh, 동력 616kWh, 총 1,131kWh였으며, 이는 4인 가구 약 4개월치 전력 사용량과 동일하다. 이를 국가 전력 배출계수로 환산하면 약 527 kgCO₂로, 참가자 1인당 **0.33 kgCO₂ (승용차 약 2km 주행)**와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나 전체 배출의 60% 이상은 장비 제조·운송 및 스트리밍 서버 운영에서 발생하여, 단순한 경기장 전력 절감만으로는 환경부하를 줄이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철거 단계에서는 공식 자료를 통해 3m³의 일반폐기물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e스포츠 환경정책이 단순 시설 효율 개선을 넘어 장비 친환경 설계(eco-design), 공유·재사용 모델, 서버 효율화 등 상류 단계 개입을 포함해야 함을 시사한다. 더불어 1988 서울올림픽 이후 스포츠 이벤트 지속가능성 논의의 연속선상에서, 이제는 국제적으로 e스포츠 탄소발자국을 정량적으로 측정·공시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EN 15804 기반 LCA는 ISO 원칙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정량적 지표를 제공하여, 향후 지속가능성 보고 의무화와 정책 제도에 실질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 기반 정량분석과 현장 자료(전력 정산서·폐기물 처리 영수증·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 e스포츠 이벤트의 전과정 인벤토리(Life Cycle Inventory, LCI)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환경영향을 실증적으로 산정하였다. 이는 e스포츠를 포함한 미래 스포츠 정책에서 국제 표준 기반의 지속가능성 관리와 글로벌 차원의 탄소발자국 보고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국내 체육계는 아직 LCA 및 인벤토리 DB 구축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므로, 스포츠 분야 특화 DB를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면 학문적·정책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 이는 향후 국제 비교·보고 체계에서 한국이 주도적 위치를 확보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 ceojms@naver.com

본 연구는 정부(환경부)의 재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지식환경서비스 특성화대학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구두 발표

올림픽에서 재현되는 세계화와 국가 정체성의 공존: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식의 서사 구조 분석

정한·박재우* (한양대학교 ERICA)

올림픽 개막식은 인류 역사상 가장 널리 시청되는 텔레비전 미디어 행사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이를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국가 이미지를 선보일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자 수단으로 활용한다(홍장선, 2020). 이러한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는 세계화 과정과 민족국가의 정체성이 서로 얽히고 경쟁하는 장이기도 하다(Tomlinson, 1999). 따라서 세계화 시대 국가 서사의 구축은 결코 단순하지 않으며, 현실의 복잡성을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식의 TV 중계 텍스트와 해설 텍스트를 중심으로 중국이 개막식에서 국가 서사를 통해 국가 정체성과 세계화의 공존을 어떻게 구현하였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Bilibili에서 공식 계정에 게시한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식 해설판 TV 중계 영상을 연구 자료로 선정하였다. Chatman(1975)의 서사 구조를 분석적 준거로 삼아 '세계화'와 '국가 정체성'이라는 두 가지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식의 TV 중계 텍스트와 해설 텍스트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①개막식의 구조, ②영상 표현 내용물(사건, 배경, 존재물), ③영상 표현 방식(해설자, 음악, 색채)의 세 가지 층위를 검토하며, 이를 통해 국가 서사 속에서 국가 정체성과 세계화가 어떻게 공존하는지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방법과 절차를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는 다음의 네 가지 측면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개막식 구조는 의례와 공연을 분절하지 않고 교차·융합하여 간결한 총체를 구성함으로써 공감을 지향하는 구조로 전환되었다. 둘째, 영상의 '내용물' 측면에서는 사건·배경·존재물 차원에서 계절·자연 등 보편 상징이 배치되었고 '존재물'은 아동과 국민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로 확장되어 포용성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었다. 셋째, 영상의 '표현 방식'에서는 해설이 복합 상징을 친화적으로 해석하고 안내하며 음악이 세계 보편 레퍼토리를 결합하여 정서적 동화를 강화하였고, 색채는 중국과 세계를 상징하는 색을 결합하고 조명은 강약의 리듬으로 세계 공동체의 이념을 구현하였다. 넷째, 국가 서사에서는 '함께'라는 프레임 속에서 국가 정체성과 세계화 이념이 상호 조율되며, 독백 국민국가 서사에서 대화적 세계화 공존의 서사로 재배치되었다. 결론적으로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식은 통일적이고 일관된 국가 서사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정체성과 세계화 서사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식이 국가 서사 속에서 국가 정체성과 세계화의 공존을 구현한 독특한 경로를 밝혀냈다. 한편으로 개막식은 중국과 세계를 상징하는 문화 기호를 통합함으로써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국가 이미지를 제시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도한 민족주의적 표현을 지양하고 '공존'을 핵심 틀로 삼아 전통과 현대, 지역과 세계가 교차하는 구조를 구현하였다. 이는 세계화가 국가 정체성을 소멸시키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표현 방식을 부여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종합적으로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식은 글로벌 맥락 속에서 국가 이미지를 다층적으로 구축하는 방식을 제시하였으며, 대규모 국제 스포츠행사가 어떻게 자국 문화의 독창성과 국제 관객의 심미 요구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였다.

* · kpjw11@hanyang.ac.kr

구두 발표

한국 청소년 사이버 도박 실태 및 현행 예방정책에 관한 고찰

주성택(가천대학교 초빙교수)·신다혜*(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임지은(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현대 사회에서 청소년들은 스마트폰과 인터넷 환경에 깊이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과의존은 단순한 생활습관의 차원을 넘어 게임중독과 불법 온라인 도박으로 확산되어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다.

청소년기는 자기조절 능력과 충동 억제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시기로, 즉각적인 보상에 민감하고 위험 행동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사이버 도박과 같은 중독적 행위에 취약하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차원에서 벗어나 학업 수행, 정신건강, 가정 내 갈등, 또래 관계 형성 등 다방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성인기 도박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

특히 온라인 기반 불법도박은 시·공간적 제약 없이 접근 가능하다는 특성을 지니며, 게임의 형식을 차용하여 청소년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때문에 그 중독성이 더욱 심각하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도박 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2017년 49명에서 2021년 141명으로 약 3배 증가하였으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서도 전체 청소년의 4.3%가 평생 한 번 이상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19.1%는 지난 6개월(2024년 3월~8월) 동안 도박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소년 불법도박 문제가 개인적 일탈을 넘어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청소년 도박 치료 및 불법도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은 단발적이고 산발적인 경우가 많아 청소년들의 생활환경속에서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 사이버 도박 문제를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시각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현행 예방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고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기반하여, 문헌 고찰을 통해 정부의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 교육 및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정부의 산발적인 정책과 중·장기적인 모델 없이 청소년의 불법도박을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불법도박이 발생하는 개인의 문제에서부터 가정, 학교, 지역사회, 제도, 정부 등 상호관계를 상정하여 발생의 원인 및 예방과 치유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종합적인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에게 온라인 도박의 위험성과 중독성을 강조하는 예방 교육을 초·중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전 교육 과정에 포함 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운영중인 학교스포츠클럽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경찰 당국과 그리고 통신사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등 관련 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불법도박 사이트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를 기대한다.

* ektkd0520@naver.com

구두 발표

중국 노인 신체활동 영향 요인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사회생태학적 접근

학사위·박재우*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본 연구는 체계적 문헌 고찰 및 메타분석을 위한 권장 보고 항목(PRISMA)의 지침을 적용하여(Page, M. J., McKenzie, J. E., Bossuyt, P. M., 등, 2021) 중국 노인 신체활동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중국 노인 신체활동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의 일반적 특성과 동향은 무엇인가? 둘째, 사회생태학적 모델(개인, 대인관계, 조직, 지역사회, 정책)에 준거하여, 중국 노인 신체활동 영향 요인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문헌 수집을 위해 중국 지망(CNKI)과 Web of Science(WOS) 데이터베이스에서 '노인' or/and '고령자'와 '신체활동' or/and '체력활동'을 키워드로 검색하였으며, 총 3,579편의 학술논문을 확인한 후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23편의 문헌을 선정하였다. 이어 내용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선정된 문헌의 초록, 본문 및 결론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절차는 다음의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1) 저자, 발행 연도, 연구 대상과 표본 수, 연구 방법과 도구, 그리고 신체활동 영향 요인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연구의 발전 동향을 파악하였다. (2) McLeroy 등(1988)이 제안한 사회생태학적 모델을 분석 틀로 삼아, 중국 노인 신체활동 영향 요인을 '개인', '대인관계', '조직', '지역사회', '정책'의 다섯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개인의 심리적, 생리적 특성(예: 성별, 연령, 의지 등)은 '개인 차원'에 해당하며, 가정, 이웃, 또래 등과의 상호작용 요인은 '대인관계 차원'으로 분류된다(김태한, 전영욱, 2021). 의료 보건 시스템 등 사회 조직의 영향은 '조직 차원'에 포함되며, 지역 안전, 시설 접근성 등 물리적 환경 요인은 '지역사회 차원'으로 분류된다(McLeroy et al., 1988). 국가 정책, 법규, 사회문화적 요인은 '정책 차원'에 속한다(Bronfenbrenner, 1977).

이상의 연구 방법과 절차를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정된 문헌은 모두 최근 10년 내 발표되었으며, 연구 대상은 주로 도시 노인이었고, 양적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총 30개의 신체활동 영향 요인이 확인되었으며, 긍정적 요인 15개, 부정적 요인 4개, 양방향 11개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생태학적 모델의 다섯 차원별로 살펴보면, 개인 차원에서는 11개 요인(36.7%)이 확인되었으며, 긍정적 요인으로는 일반 질환에 대한 건강 지식, 사회경제적 지위, 심리적 능력, 기술 제품 활용 등이 포함되고, 부정적 요인으로는 낙상 위험, 연령이 포함되었다. 또한 개인행동 동기, 교육 수준, 신체 기능 상태, 성별, 혼인 상태 등은 양방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차원에서는 5개 요인(16.7%)이 확인되었으며, 사회적 지원망, 사회적 상호작용 및 네트워크, 또래 지지망, 체육 지도자 지지망이 긍정적 요인이고, 가족 지지망은 양방향 영향을 보였다. 조직 차원에서는 2개 요인(6.7%)이 확인되었으며, 체육 조직 영향은 신체활동을 촉진하는 반면, 의료 시스템과 의사 영향은 신체활동 부정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10개 요인(33.3%)이 확인되었으며, 긍정적 요인으로는 지역사회 안전성, 지역사회 체육시설 수량, 체육 시설 접근성, 지역사회 보행 가능성이 포함되고, 부정적 요인으로는 장소 시설 다양성이 포함되었다. 교통 접근성, 지역사회 환경 질, 기상 요인, 상업시설 접근성, 거리 연결성 등은 양방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정책 차원에서는 2개 요인(6.7%)이 확인되었으며, 운동 증대 조치, 건강 증진 및 생활 습관 정책이 모두 신체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는 중국 노인 신체활동이 개인, 사회, 조직, 지역사회 및 정책 등 다층적 요인의 종합적 영향에 의해 결정됨을 보여준다. 향후 연구에서는 양적 및 질적 방법을 결합하여 각 요인의 상호작용과 내적 메커니즘을 심층적으로 탐구함으로써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증대 전략 수립을 위한 학술적 근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 kpjw11@hanyang.ac.kr

포스터 발표

한국형 스포츠행복지표 건강 영역 지표의 공간분석:
건강생활실천율과 우울감 경험률을 중심으로*

강권현(인하대학교)·김민규** (인하대학교)

본 연구는 김민규, 문승현, 강권현(2025)에서 델파이 합의를 거쳐 최종 지표로 확정된 한국형 스포츠행복지표(Sports Happiness Index: SHI) 건강 영역의 핵심 지표인 건강생활실천율(금연·절주·걷기 동시 실천율)과 우울감 경험률(최근 1년간 2주 이상 일상기능에 지장을 주는 우울감 경험 비율)을 활용하여, 시·군·구 단위의 공간적 분포와 군집 특성을 규명하고 정책적 취약지를 식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스포츠행복지표의 공간분석과 시각화 절차를 실시하기 위하여 Moran's I를 통해 공간 자기상관을 검증하고, LISA 분석을 적용하여 지역별 집락과 이상치를 탐색하였다. 분석 자료는 KOSIS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질병관리청 주관의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건강생활실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63.6%)였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충청북도 보은군(15.9%)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은 약 37.3% 수준으로, 지역 간 큰 편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건강생활실천율의 Moran's I는 0.567로 나타나 강한 양(+)의 공간상관이 확인되었다. 이는 건강생활실천율이 무작위적으로 분포하지 않고, 유사한 수준의 값들이 공간적으로 뚜렷하게 집적되는 경향을 의미한다. 실제 LISA 분석에서는 High - High 유형이 42개 지역으로 주로 강서구, 강북구, 노원구, 관악구 등 수도권 중심에 분포하였으며, Low - Low 유형은 46개 지역으로 강원·충청 내륙과 영호남 일부 농산어촌 지역에 집중되어 저실천 집락을 형성하였다. 또한 High - Low 6개, Low - High 2개 지역의 이상치도 나타나, 특정 농촌 지역과 일부 광역시 권역에서 주변과 상반되는 특성이 확인되었다. 우울감 경험률이 가장 높은 시군구는 충남 서산시(11.4%)였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 곡성군(1.0%)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은 약 6.2% 수준으로, 지역 간 상당한 편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우울감 경험률의 Moran's I는 0.168로 약한 수준의 양(+)의 공간상관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는 무작위적 분포에 가까우나, 일부 권역에서는 국지적 집적이 나타났다. LISA 분석 결과, High - High 유형은 13개 지역으로 고양시 덕양구, 안산시 상록구, 성남시 수정구, 관악구, 아산시 등 수도권 및 충청권 일부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Low - Low 유형은 26개 지역으로 주로 전남·경북·경남권 농산어촌 지역에 분포하였다. 또한 High - Low 5개, Low - High 7개 지역이 도출되어, 특정 지역에서는 주변과 불일치하는 이상치 패턴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선행연구들과 같이 건강생활실천율이 생활환경 및 체육시설 접근성과 같은 구조적 요인의 국지적 변이에 민감한 반면(기동환, 이수기, 2018), 우울감 경험률은 사회심리적 취약성의 지역적 응집에 의해 보다 뚜렷한 공간적 패턴을 보임을 시사한다(국회미래연구원, 2023). 따라서 건강생활실천율이 낮은 지역에는 보행환경 개선과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지역밀착형 참여 촉진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우울감 경험률이 높은 지역에는 운동처방·지역 스포츠클럽 활동·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연계한 운동기반 정신건강 증제가 요구된다. 또한 SHI를 진단 - 개입 - 평가로 이어지는 순환적 정책도구로 제도화하여 군집의 시공간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정책 성과를 환류할 필요가 있다.

학문적으로 본 연구는 SHI의 확정 지표를 Moran's I와 LISA 분석을 통해 공간통계로 운영화 함으로써 국지적 군집의 실증적 식별, 지표 간 공간패턴의 차별성 규명, 정책 표적화의 계량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실천적으로는 지역 간 건강·행복 격차 해소를 위한 근거 기반 스포츠정책 수립의 토대를 제공하며, 공간분석의 특성상 인과 해석의 제약과 공간가중치 설정 및 데이터 시차의 민감성에도 불구하고 SHI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다.

* 이 논문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4S1A5A2A01024556)

** : kmk@inha.ac.kr

포스터 발표

전공 만족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불안감에 미치는 영향 : 체육계열 전공 대학생 중심으로

김호준·이유정·손민영·김태현·김영미* (삼육대학교)

현대 사회에서 대학생의 진로 불안은 개인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 되고 있다. 2024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층(15-29세)의 고용 불안정성 지표는 OECD 평균인 12.5%를 상회하는 15.2%로 나타났다. 또한 체육계열 전공 대학생은 스포츠 산업의 단기·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직업군이 세분화 되어있기에 취업 기회가 제한적이다. 이들은 전공과 진로의 불일치, 산업 구조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명확한 진로 인식이 부족하고, 정보 접근성 부족으로 진로 불안이 더욱 심화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체육계열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 만족도와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 불안감 및 진로결정·진로 준비 행동에 미치는 구조적 경로를 규명하고, 진로 불안 완화를 위한 교육·상담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대학의 체육계열 전공 학부생 150명을 표집해 오프라인 설문과 네이버폼을 병행한 자기 보고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모든 참여자는 연구 목적과 개인정보 보호 방침을 설명받고 서면 동의 후 참여하였다. 이에 일반적 특성 질문 7개, 전공 만족도(AMSS) 20문항, 자기효능감 21문항, 진로불안(JAS) 30문항을 총 4개의 요인에 대하여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 및 측정하였으며, 문항은 총 7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SPSS WIN 29.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참여에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alpha=.05$ 에서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전공 만족도는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이는 진로 결정 및 진로 준비 행동을 촉진하는 핵심 매개 경로로 작용하였다. 둘째,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 불안이 유의하게 낮아졌으며, 목표 선택·계획수립·문제해결 능력이 진로 결정 행동을 직접적으로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로 불안은 전공 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을 약화 시켜 진로 결정을 지연·회피하게 만드는 부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미래 불안과 자기 명확성 부족이 가장 큰 부정적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체육계열 전공 대학생의 안정적 진로 결정을 위해 전공 만족도 제고와 자기효능감 증진을 목표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 교수-학생 관계 개선, 대학 차원의 체계적 진로 지원 체계 구축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대학은 학생들이 직업 탐색 워크숍을 통해 스포츠 산업의 다양한 직업군을 탐색하고, 현장 실습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스포츠 산업 고용 안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적 설계를 통해 진로 불안의 장기적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체육계열 전공 학생들의 진로 정책 수립에 보다 실증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회복탄력성과 낙관성과 같은 개인 내적 요인이나 가족, 친구, 교수 등 사회적 지지가 진로 불안을 완화하는 경로를 탐색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 · ymkim@syu.ac.kr

포스터 발표

스포츠지도사 자격 연수과정의 효과성 분석

임지은·김차용* (고려대학교)

현대 사회에서 스포츠는 건강 증진과 사회적 교류를 넘어 직업 창출 등 다양한 가치를 지닌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스포츠지도사 국가자격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자격 취득자는 필기·실기·구술시험을 거쳐 반드시 연수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연수과정의 교육내용과 운영 방식에 대한 체계적 평가가 부족하며, 연수 만족도가 자격증 활용도와 자격취득 만족도로 이어지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 또한 제한적이다. 기존 연구들은 연수생들의 인식, 자격 취득 동기,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연수 만족도와 자격증 활용 및 취득 만족도의 구조적 관계를 포괄적으로 다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 만족도가 자격증 활용도와 자격취득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자를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 (convenience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여 2025년 8월 한 달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12부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도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스포츠지도사 연수 만족도, 자격증 활용도, 자격증 취득 만족도를 측정하는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모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평가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9.0과 AMOS 30.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CFA), 신뢰도 검증(Cronbach's α), 그리고 구조방정식 모형(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연수과정 만족도의 하위요인 중 교육내용과 교수역량은 자격증 활용도의 하위요인인 현장활용성과 진로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지식 전달보다는 현장 사례를 반영한 실질적 교육 콘텐츠와 강사의 전문성이 지도자의 직무 역량과 진로 설계에 직접적으로 기여함을 보여준다. 반면 교육방법은 현장활용성과 진로선택에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전달 방식 자체보다는 교육 내용의 질과 교수자의 전문성이 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였다. 또한 자격증 활용도의 하위요인 중 현장활용성과 진로선택은 자격취득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격증이 직무 수행 능력과 경력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때 취득자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은 교육내용의 질적 강화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사례 기반 교육 모듈의 개발과 함께, 스포츠 산업의 최신 동향과 정책 변화를 반영한 교육과정 설계가 요구된다. 둘째, 교수역량과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강의 참여 확대와 더불어, 교수자의 교수법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교수자가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닌 학습자 중심의 촉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교육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방법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기존의 강의식 전달 방식이 학습자의 몰입과 참여를 유도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토론, 협력학습, 프로젝트 기반 학습 등 참여 중심의 학습 방법으로 교육방법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진로 설계 및 자격증 활용 지원 체계의 강화가 요구된다. 자격증 취득 이후에도 취업 상담, 멘토링, 커리어 로드맵 제공 등을 통해 취득자가 지속적으로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지원의 강화가 필요하다. 자격증 취득 이후에도 보수교육 및 전문성 심화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자격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도자와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자격증의 직업적·사회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 jisarang6085@gmail.com



BUSAN 2025

제106회 전국체육대회기념
제63회 한국체육학회 학술대회

**건강수명 연장 - 운동을 통한
체육계의 역할을 이야기하다.**